2023. 3. 13.(월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

국제협력과장	조혜정	02-2133-5260
국제정책팀장	박경민	02-2133-5262
미주구주팀장	전영우	02-2133-5284
담 당 자	권선애	02-2133-5263
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 쪽수 : 6쪽

오세훈 시장, '매력도시 서울' 도약 위해 유럽 출장길 올라

- 3.12~22, 기업투자유치 등 경제외교, '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' 등 매력도시 서울의 미래상 제시
- 런던 : '건강 도시파트너십 시장회의' 참석, 금융,기후변화,도시경쟁력 등 도시간 협력강화 논의
- 더블린: 1인 GDP 세계 3위 더블린과 신규 우호도시, 도크랜드에서 수변개발 경쟁력 모색
- 함부르크 : 도시경관 바꾼 하펜시티, 엘프필하모니 찾아 도시문화공원 비전 공유
- 코펜하겐 : 어르신·장애인시설서 선진 복지사례 확인, 친환경·지역명소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

□ 오세훈 시장이 '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)'(3.14.(화)~16.(목) / 런던) 참가 차 3월 12일(일)~22일(수)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. 영국 런던, 아일랜드 더블린, 독일 함부르크,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일정이다.

□ 이번 출장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, 강과 바다를 활용해서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, 기업,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온다는 계획이다.

<런던 : 기업 투자·유치 협력, 수변개발 매력요인 분석, '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' 참가>

□ 우선, 유럽의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(3.12.~15.)에서는 '금융·기업도시'와 '수변매력도시'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.

□ 오세훈 시장은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(Victoria and Albert Museum)에서 서울패션 디자인 기증식을 통해 'K패션'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런던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.

○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은 460만여 점 이상의 예술품, 서적, 미술 공예품 등을 소장, 1992년부터 한국 전시관을 개관 및 운영, 도자기, 자수, 칠기, 패션, 디자인 및 디지털 아트 등 보유하고 있는 영국 최대의 공예디자인 박물관이다.

□ 이어, 민관협업 유럽 최대 구도심 역세권 개발사업인 킹스크로스역 일대, 공연장·전망대 등이 어우러진 콜드롭스 야드, 독특한 외관과 평면계획, 필로티 공간으로 건축 혁신을 이뤄낸 리덴홀 빌딩,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와 프로그램, 공원 내 랜드마크 시설로 시민 접근성을 높인 런던의 공원 명소 하이드 파크 등을 시찰한다.

□ 또한, 오시장은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, 템즈강의 활용도를 높이는 신(新) 이동수단(리버버스,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)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영국 템즈강보다 강폭은 5~6배는 넓고 길이는 41km에 이르는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. 이러한 도심 매력도를 높인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

야심차게 추진하는 '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'에도 참조할 예정이다.

□ 이후 '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' 주최기관 및 우호협력도시인 런던 사디크 칸(Sadiq Khan)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금융, 기후변화, 도시경쟁력 강화 등 두 도시간 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.

※ 런던(우호협력 도시, 2015.12.4.)

□ 금융·기업하기 좋은도시 서울을 위해 런던증권거래소-서울투자청 협력 업무협약(MOU),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, 니콜라스 라이언스(Nicolas Lyons) 런던금융 특구 시장(Lord Mayor) 면담 등 기업해외진출 및 서울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.

○ 런던금융특구 시티오브 런던은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이곳 금융기업에서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%(2.73조 달러=약 3,095조원),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과 선물 거래의 50%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.

□ 런던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, 오세훈 시장은 3월 15일(수) '세계 건강도시시장회의'에 참석,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'손목닥터 9988' 등 약자와의 건강동행을 위한 서울 스마트건강정책을 발표한다. 후원 기관인 블룸버그 재단의 창시자이자 세계보건기구(WHO) 글로벌 대사인 마이클 블룸버그(Michael R. Bloomberg)와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.

○ 건강도시 파트너십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)은 암, 당뇨. 심혈관계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예방을 위해 구축된 서울·런던·파리·도쿄 등 70여 개 도시간 글로벌 네트워크이다.

○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)는 올해 최초 개최, 20여개 도시 시장 등 총 50개 이상 도시

시장단과 전문가가 참석 비전염성 질환 상해 예방을 위한 도시정책발표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이다.

<더블린 : 더블린시 우호협력 체결, IDA와 투자 협력, 수변업무복합단지 재조성 사례 이해>

□ **두 번째 아일랜드 더블린(3.17.~19)에서도 투자유치, 수변개발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강화 전략 확보를 위한 일정이 계속된다.**

□ **오세훈 시장은 아일랜드 금융중심지이자 수도인 더블린과 신규 우호도시 업무협약(MOU)를 체결하고 낙후된 항만지역에서 글로벌 정보기술(IT) 기업 유럽 본사가 위치한 더블린 도크랜드 지역을 통해 수변 업무복합단지 재조성 사례를 둘러본다.**

○ 더블린은 1990년대 초 서유럽 최빈국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해 2022년 1인당 GDP 세계 3위로 성장한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정치·경제 중심지로 구글, 애플 등 정보기술(IT)분야 10대기업 중 9개 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.

○ 도크랜드에 위치한 '그랜드 캐널독 지구(Grand Cannal Dock)'는 과거의 가스시설부지를 재개발한 사례로 전폭적인 규제완화와 공공-민간 협력을 통해 조성 글로벌 정보기술(IT)기업이 위치하여 '실리콘 독'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. 특히. 주변공원, 수(水) 공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.

□ **이후,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호평받는 아일랜드 산업개발청(Industrial Development Agency)을 찾아,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선다.**

○ 아일랜드산업개발청(IDA)는 대형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활동, 투자홍보 활동 등을 위해 1969년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아일랜드의 경제

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(12.5%)과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활동을 꼽는다.

□ **아일랜드 마지막 일정은 캐롤라인 콘로이(Caroline Conroy) 더블린 시장 초청으로 성 패트릭의 날(St,Patrick's Day) 행사를 참관하며 양 도시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.**

<함부르크 : 수변복합개발 하펜시티, 디자인 랜드마크 엘프필하모니 시찰>

□ **세 번째 방문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(3.17.~19)에서는 대표적 수변 복합개발 하펜시티와 랜드마크 건축물 문화예술시설인 '엘프필하모니(Elbphilharmonie)'를 방문한다.**

□ **오시장은 18일(토) 도시경관을 바꾼 수변도심개발 사례 하펜시티와 '엘프필하모니' 현장에서 접근성, 풍부한 문화녹지, 수변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도심문화공원 사업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.**

○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작품으로, 1966년 지어진 카카오 창고를 오래된 붉은 벽돌 위에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을 한 건축물로 리노베이션 되었으며, 클래식 음악계의 명소로 시 정부가 직접 추진한 디자인 중심 사례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이다.

<코펜하겐 : 아마케르 바케 자원회수시설 등 선진 운영사례, 수변 복합문화예술레저 시설>

□ **마지막으로, 덴마크 코펜하겐(3.19~21)에서는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, 어르신·장애인 등 약자 관련 정책 현장 등을 둘러보고, 선진사례를 통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.**

□ **첫 일정으로 다양한 혁신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다.**

○ 야외경사로와 어우러진 옥상녹화 등 건축디자인 사례인 8House, 수상 부유식 대학생 기숙사 어반리거(Urban Rigger), 덴마크 대표 부유식 해수풀장 브리게섬 하버배스(Harbour Bath) 등이 주요 현장이 될 예정이다.

□ **우호협력도시('14.8월)인 덴마크 코펜하겐 소피 안데르센**(Sophie Andersen) **시장과도 현안 관련 정책 교류·협력을 논하는 자리를 갖고,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 베스타스와 아시아·태평양 지역본부 서울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등 경제 도시외교도 펼친다.**

○ 풍력터빈 제조기업 베스타스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(34.3%, 1위)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(15%)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다.

□ **마지막으로 친환경 설계 및 혁신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가 된 폐기물 처리시설 '아마게르 바케 자원회수시설',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'무스보어바이 쉬드'(Musvågevej Syd),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'스트랜드마크세흐'**(Strandmarkshave)**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섬세한 복지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.**